

『白下日記』에 나타난 白下 金大洛의 意識 世界*

송지현**

<차례>

1. 서언
2. 백하 김대락의 사상적 전환과 독립운동기지 건설
3. 백하 김대락의 현실 인식과 계몽의식
4. 결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백하일기』를 통하여 백하 김대락의 현실 인식과 의식 세계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김대락은 20세기를 전후해 격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사상의 전환을 경험한 경북 안동 출신의 혁신유림이다. 이상룡이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하고 계몽운동을 주도하자 안동의 유림 사회에 변화가 일었고, 이에 따라 김대락도 사상의 전환을 겪게 되었다. 설립되기를 극력 반대하였던 신학문 교육기관인 협동학교에 김대락이 자신의 가옥을 校舍로 제공한 것은 그의 사상적 전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후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자 1911년 1월, 김대락은 67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일가를 이끌고 만주로 이주하였다. 만주에서도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후원이 이어졌다. 1911년 5월 유하현 추가가에 신흥강습소, 1912년 6월 동화현 함니하에 신흥중학교가 개교하였는데, 이는 훗날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으로서 만주 이주 초창기 독립운동기지의 역할을 담당한 중요한 교육기관이었다. 김대락은 두 학교의 설립에 참여하며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대락은 『백하일기』를 통하여 현실 극복의 의지와 광복을 이루려는 소망을 표현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8959)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하였다. 斷指를 감행했던 박부인의 비장한 意氣를 일기와 한시에서 소개한 것이나, 가사 <분통가>에서 광복을 이루고 당당히 서양의 반열에 오르기를 노래했던 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김대락은 후속 세대의 勉學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 <권유문>이나 한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착실하게 학문에 정진하여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주문하였다. 여성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손녀에게 <書丁茶山二千字後>라는 글을 지어 학문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처럼 김대락은 남녀를 불문하고 후속 세대에 대한 면학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김대락의 『백하일기』는 그의 사상과 의식은 물론 당대 만주의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백하일기』를 통하여 김대락이 영위했던 만주에서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광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위해 후속 세대에게 끊임없이 면학을 요청했던 계몽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백하, 김대락, 백하일기, 현실 인식, 계몽의식

1. 서언

20세기를 전후해 조선의 유림들은 조국의 쇠퇴와 멸망을 목도하며 격변의 시대를 경험하였다. 더불어 서구의 문명이 유입되면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유림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유림으로 나뉘며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 안동의 일부 유림들은 보수유림에서 ‘혁신유림’으로 전환하였다. 이른바 혁신유림이라는 것은 “구시대의 보수 논리에서 시작하였던 의병유림이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계몽운동이라는 또 다른 방식의 救國 전선에 뛰어든 경우”¹⁾를 의미한다. 류인식, 김동삼, 이상룡 등을

1) 정병석, 「일제강점기 경북 유림의 만주 망명일기에 보이는 현실인식과 대응-『백하일기』와 『서사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4, 92쪽.

비롯해, 이들과 협조적인 관계에 있던 白下 金大洛(1845~1914)도 혁신유림의 주요 인물로 거론된다.

김대락은 경북 안동의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산 김홍락의 문인이며, 조부 김헌수와 숙부 김진기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위정척사의 길을 걷는 보수유림이었으나 혁신유림으로 거듭난 데에는 매부인 이상룡의 영향이 지대하였다. 이상룡이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세우는 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어 사상의 전환을 겪었고, 그 결과 류인식이 설립한 신학문 교육기관인 協東學校에 자신이 거주하던 50칸의 집을 제공하면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결국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게 되자, 1911년 67세 고령의 몸으로 만주로 이주하였고 한인 사회의 안정화와 독립 운동에 분투하였다.²⁾

김대락은 1911년 1월 경북 안동을 떠나 만주에 도착하여 1914년 1월까지 만주에서 지냈던 약 3년간의 생활상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白下日記』이다. 1911년 「西征錄」, 1912년 「壬子錄」, 1913년 「癸丑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계에서는 이들을 『백하일기』로 통칭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백하일기』³⁾를 대상으로 김대락의 의식 세계를 검토하여 이 시기 유림의 문학적 대응 양상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김대락과 관련한 연구는 안동 유림들의 사상의 전환과 만주 망명 시기의 시대적 배경 등 철학적·역사학적 분야의 연구가 대다수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김대락을 비롯한 경북 안동 지역의 유림을 혁신유림 혹은 개신유림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된 동기 및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2) 강운정, 「백하 김대락의 생애와 『백하일기』」,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1~4쪽.

3)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을 주 대본으로 한다. 이후 원문 인용의 경우, 「<기사 제목>, 『국역 백하일기』, 쪽수. (날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일기나 제목이 없는 한시의 경우에는 기사 제목을 쓰지 않는다. 괄호 안의 날짜는 원문을 반영한 음력임을 밝혀둔다.

독립운동기지의 설립 배경을 제시하였다.⁴⁾ 이 가운데 김대락의 이주 과정과 생활상에 주목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⁵⁾ 이를 통해 김대락의 만주 이주와 독립운동에 대한 현황 등 시공간적 제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논의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백하일기』에 대한 문학적 연구도 다소 제출되었다. 1979년 김용직이 <憤痛歌>를 소개하는 논문에서 『백하일기』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⁶⁾ 이 논문에서는 『백하일기』에 수록된 가사 작품인 <분통가>의 의미와 의식에 집중하여 『백하일기』의 전모는 드러내지 못했다. 이후 조동걸이 김대락의 인적 관계와 『백하일기』의 주요 기사를 대략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김대락의 사상적 변화와 독립운동단체의 새로운 면모 등이 밝혀졌으나 해체 수준에 그쳐 문학적 의미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다.⁷⁾ 이후로 <분통가>에 주목한 연구가 이어지며 만주망명가사의 하나로써 가사문학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밝혀졌다.⁸⁾

-
- 4)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다음의 논의를 참고하였다(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장세운,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 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안동유림의 남만주 이주와 이상룡·김동삼의 활동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4, 만주학회, 2017; 강운정,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한국학논총』 49,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8; 서동일, 「유림의 만주 이주와 신흥무관학교 설립」, 『숭실사학』 45, 숭실사학회, 2020; 이계형, 「1910년대 전반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안동 혁신유림의 역할」, 『만주연구』 33, 만주학회, 2022.)
- 5) 정병석(2014), 앞의 논문.; 김순석, 「김대락의 현실인식과 대응」, 『태동고전연구』 41,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8.
- 6) 김용직, 「<분통가>의 의미와 의식」, 『한국학보』 5-2, 일지사, 1979.
- 7) 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1911~1913)」, 『안동사학』 5, 안동사학회, 2000.
- 8) 고순희, 「일제 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담당층 혁신유림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27, 한국고시기문학회, 2011; 고순희, 「만주 독립운동가 김대락의 <분통가>」, 『오늘의 가사문학』 13, 고요아침, 2017; 손대현, 「<분통가>에 나타난 백하 김대락의 삶과 미완의 꿈」, 『안동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손대현, 「<분통가>에 나타난 역대 인물 서술의 양상과 그 의미-<역대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하일기』에는 가사 작품 이외에도 200여 수에 달하는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백하일기』의 한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어왔는데, 주로 복수심, 향수, 회한, 가족애, 무력감 등 김대락이 표출하고 있는 정서에 주목한 경향이 많아,⁹⁾ 포괄적인 인식이나 의식의 세계를 진단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한경희는 『백하일기』를 내용상 망명문학, 형식상 일기문학으로 보면서 만주 망명 초기 실정 파악에 유용한 자료로서 그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였다.¹⁰⁾

또한, 전설련은 『백하일기』가 산문과 운문을 혼효해 다양한 서술방식을 사용하였다는 문학적 성격을 밝혔다.¹¹⁾ 이후 만주 망명문학으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망명 작가들의 현실 인식과 문학적 대응에 대해 살피면서 『백하일기』를 대상 작품으로 거론하며 일기문학의 형식을 통해 망명지에서의 생활상을 기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¹²⁾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하여 김대락과 『백하일기』의 역사학적·철학적 면모는 대략적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백하일기』의 문학적 연구는 단편적으로 존재해 보완이 필요하다. 『백하일기』는 일기라는 틀에, 한시, <분통가>와 같은 가사, <권유문>, <공리회 취지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운문과 산문이 삽입되어 있다. 이를 총체적으로 살피면서 김대락의 현실 인

『한국시가연구』 55, 한국시가학회, 2022.

9) 김명균, 「백하 시 연구」, 『경북인의 만주지역 항일 투쟁사 연구』, 경북유림 만주망명 100주년 및 개관 4주년 기념 학술회의,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11; 김윤규, 「20세기 초 만주 망명 지식인 한시의 문학적 성격-『백하일기』 소재 시의 경우」, 『국어교육 연구』 50, 국어교육학회, 2012; 전설련, 「『백하일기』의 서술방식과 그 문학적 성격」,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6; 전설련, 「백하 김대락의 한시에 구현된 가족애와 그의 미」, 『가족과 커뮤니티』 2,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2020.

10) 한경희, 「백하 김대락의 일상기록 『백하일기』 고찰」, 『한국지역문학연구』 3, 한국지역문학학회, 2013.

11) 전설련(2016), 위의 논문.

12) 전설련, 「근대전환기 만주망명작가들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대응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22.

식과 의식 세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백하일기』는 김대락의 사상과 의식, 만주의 생활상 등이 집약된 기록으로 그 가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학적 연구의 대상으로써는 다른 유럽의 저술에 비해 관심받지 못했다. 『백하일기』에는 김대락의 현실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동시기 유럽들의 문학적 대응과 다양한 의식 세계를 조명해 보는 연구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백하일기』 연구는 하나의 사례로써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백하 김대락의 사상적 전환과 독립운동기지 건설

김대락은 1845년 愚坡 金鎮麟과 함양 박씨 사이에서 4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中彦, 호는 賁西이다. 노년에 만주로 이주하였을 때 백두산 아래에 산다는 뜻으로 ‘白下’라는 별호를 사용했다. 김대락의 집은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다수의 노비를 거느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던 집안이었다. 김대락은 定齋 柳致明의 문하에서 수학한 안동 대표 유림인 西山 金興洛의 문인이었으며, 조부 百忍 金憲壽와 숙부 愚下齋 金鎮麒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¹³⁾

김대락은 경북 안동의 명망 있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전통 유학을 체득한 전형적인 보수유림이었다. 그러나 20세기를 전후하여 혼란한 시국을 경험하는 가운데, 류인식과 이상룡 등의 영향을 받아 신학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김대락이 사상의 전환을 겪으며 이른바 혁신유림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과정과,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헌한 부분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3) 강윤정(2011), 앞의 책, 1~3쪽.

1) 신학문 교육의 필요성 자각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의 여파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였다. 안동의 유림들도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때 김대락은 부친상을 당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군자금 충당에 보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매부인 石洲 李相龍이 가야산에서 의병 봉기를 추진할 때에도 군자금 모금에 협조했을 것으로 보인다.¹⁴⁾

주지하듯 김대락은 전통 유학을 고수하고 의병 활동에 간여하는 등 위정척사의 사상이 짙은 인물이었다. 김대락 뿐만 아니라 안동 유림들은 구시대의 보수적 논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정제학파의 일원으로서 퇴계의 主理的 사유를 바탕으로 한 강한 도통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諸子는 물론 불교나 서학, 양명학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자학도였다.¹⁵⁾ 그렇기에 김대락은 신학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면모는 『황성신문』에서 “原來 舊學問의 大方家로 守舊派의 一指를 首屈하는者라 數年以前에도 或 新教育을 發起하기로 言及하는 者가 有하면 大聲叱責하고 極力反對했더니”¹⁶⁾라고 김대락을 평가한 데서 잘 드러난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0년대 후반 김대락은 사상적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이상룡의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룡은 의병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시국의 정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세계열강의 서적을 탐독하였다. 세계정세의 변화를 파악하며 서양의 근대사상을 수용하는데 이르게 되면서 신학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¹⁷⁾ 이후 이상룡은

14) 조동걸(2000), 앞의 논문, 147~148쪽.

15) 박원재, 「석주 이상룡의 현실인식과 유교적 실천론-정제학파의 유교교육론」, 『오늘의 동양사상』 11,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4, 382~383쪽.

16) <嶠南教育界에 新赤幟>, 『황성신문』, 1909년 5월 8일자.

17) 김기승, 「해제」,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1~3쪽.

대한협회 안동지회의 설립을 추진하며 계몽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안동 유림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일었고, 김대락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김대락은 이상룡을 통해 『大韓協會報』를 접하게 되었고 <讀大韓協會書有感>이라는 시를 남겼다. <독대한협회서유감>을 통해 김대락의 인식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讀大韓協會書有感> 대한협회를 읽고 느낌이 있어

老夫無明尸似居	늙은이 눈 어두워 죽은 듯이 누웠다가
半坐起讀大韓書	창문에 기대어 大韓書를 읽는다
衝心裂肺言言切	폐부를 찌르는 말 마디마디 간절하니
可使吾人淚滴裾	두 눈에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시네
有鏡煤塵鏡似盲	때 끼고 녹슨 거울 비춰볼 수 없어서
長時處在舊粧簾	오랫동안 서랍 속에 버려두었다가
磨光刮垢還依舊	때 벗기고 닦아내어 옛 모습 되살리니
始識青菱本體明	비로소 알았노라 靑銅거울 본래는 밝은 것을
有劔韜鋒劔匪眞	칼집에 넣어둔 검 칼이라 할 수 없어
十年淬鏢鍊精神	십 년 두고 검을 갈며 정신을 가다듬어
盤根錯節恢遊地	난마처럼 얽힌 사슬 단번에 베어내니
始識秋蓮用在人	비로소 알았노라 秋蓮같은 칼도 써야만 검인 것을
有玉藏山玉似珉	산속에 묻힌 옥돌 겉모습이 돌 같아
楚山泣別孰知眞	통곡하며 호소하던 어느 누가 알아줄까
一朝剖璞爲明月	하루아침 쪼개어 천하에 드러내니
始識魚珠不敢珍	비로소 알았노라 魚珠는 보배가 아닌 것 ¹⁸⁾

18) 김형식, 「讀大韓協會書有感」, 『先考遺稿』, 7쪽; 조동걸(2000), 앞의 논문, 150쪽에

김대락은 『대한협회보』를 읽고 간절한 언사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탄하였다. 때 문은 거울, 칼집에 넣어둔 검, 산속에 묻힌 옥들을 잘 닦고 가다듬어야 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거울과 칼과 구슬은 때가 끼고 숨겨져 있으며 묻혀있을 뿐 우리 본래의 모습이었다고 자각했다는 점에서 서양의 근대사상을 수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협회의 계몽운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사상 전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후 김대락의 행보를 살펴보면 사상의 전환이 자리잡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동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그것이다. 협동학교의 규모가 협소하여 불편함을 겪자, 1909년 김대락은 자신의 집 50여 칸을 교사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 내용은 『황성신문』 1909년 5월 8일자 <嶠南教育界에 新赤幟>라는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嶠南教育界에 新赤幟>

乃於近日에 安東來信을 據호즉 該郡 臨縣內面 川前里居 金大洛氏가 教育을 振起호 思想으로 自己所有의 新建築호 五十餘間 家屋을 出捐호야 校舍를 作호고 自己난 一小屋에 移住호야 曰 吾의 容膝은 於此足矣라 호고 一般人士를 提挈호야 大加擴張호기로 熱心做去호다니 此는 嶠南教育界에 新赤幟를 建立호았도다

盖氏의 歷史는 原來 舊學問의 大方家로 守舊派의 一指를 首屈호는 者라 數年以前에도 或 新教育을 發起호기로 言及호는 者가 有호면 大聲叱責호고 極力反對호다니 至于近日에 幡然大覺호고 毅然奮發호야 曰 余가 新教育에 對호야 其時務의 必要됨을 早已覺得지 못호는 것이 大恨이라 今始覺得호았스니 兪지 獻身的 義務를 不爲호리오 호고 如彼特殊호 義舉가 有호니 此又守舊家의 先導者됨이 遠近에 普及호 影響이 有호 故로 吾儕가 特筆을 舉호야 爲之讚

서 재인용.

頒^호노니 嶠南人士와 其他國內에 守舊諸氏는 舉皆觀感於此^호며 興起於此^호
야 大韓世界에 文明事業이 蒸蒸日上^호고 煥然日新^호기로 顯祝不已^호노라¹⁹⁾

위의 기사에는 김대락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50여 칸의 집을 내놓고 자신은 작은 집으로 옮겼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김대락이 구학문의 대가로서 수년 전만 해도 신교육에 대해 반대하던 인물이었지만 큰 깨달음을 얻고 이런 일을 행했다는 점을 찬양하였다. 김대락은 신학문 교육을 급선무라 여기면서 일찌감치 깨닫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앞으로는 헌신적으로 의무를 다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대락이 협동학교라는 신학문 교육기관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김대락은 사상적 전환을 통해 시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계몽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총체적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학교 설립에 대한 공헌과 기여

1910년 조선은 결국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1911년 1월 김대락은 6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만주로 이주하였다. 그는 만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인 사회의 안정화를 꾀하며,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 결성, 교육기관 설치 등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김대락은 만주에서도 학교를 세우는 일에 깊이 간여하며 관련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여기서 학교는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와 신흥중학교를 가리킨다. 신흥강습소는 1911년 5월 柳河縣 三源浦 芻家街에 세워진 독립군 양성기관이다. 신흥강습소의 설립은 국권회복운동을 펼치고 있던 신민회 인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며 동분서주하였다. 안창호, 신채호 등은 중국 청도에서 독립운동기지 관련 회담을 개최하고, 이회영과 이동녕 등은 연해주

19) <嶠南教育界에 新赤幟>, 『황성신문』, 1909년 5월 8일자.

와 만주 일대를 답사하며 그 터전을 물색하였다. 그 결과 유하현 삼원포가 선정되었고 신민회 인사들의 만주 이주가 이어졌다.²⁰⁾

이러한 과정에서 신민회의 영향을 받은 경북 안동의 유림들도 일가를 이끌고 만주로 이주해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중 김대락과 그의 일가는 신흥강습소 설립 초기에 긴밀히 연관되었다. 관련 인사들이 김대락을 찾아와 학교 건립에 대한 제반 안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李東寧, 張裕淳이 와 보았다.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 비분하여 斷髮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학교를 건립하는 일을 장황하게 계획하였다. 아마도 이곳에 새로 우거한 사람 중에서 가장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²¹⁾

위의 인용문은 1911년 4월 23일의 일기로, 이동녕과 장유순이 김대락을 방문하여 학교 설립에 관한 계획을 상세하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의 설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핵심 인물들이 수시로 김대락을 찾아와 자문을 구했던 것이다. 그만큼 김대락이 신흥강습소의 설립에 적극적인 후원을 펼쳤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의 운영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있다. 김대락의 아들 金衡植, 조카 金正植, 사위 李文衡 등은 학교 농막에 콩을 심고 김을 매는 등 농사에도 직접 참여하였다.²²⁾ 이에 대하여 김대락은 “사방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여, 張載가 “토지를 구획하여 곡식을 모으고, 학문을 일으켜 예를 이루려 하였던 뜻”이라며 가상하게 여겼다.²³⁾ 이후 5월 14일

20) 한시준(2011), 앞의 논문, 5~8쪽.

21) 『국역 백하일기』, 77쪽. (1911.4.23.): 李東寧, 張裕淳, 來見, 憤悱時事, 極說薙髮之事. 且以學校建立事, 張皇籌劃. 蓋此地新寓中, 第一主張之人云.

22) 『국역 백하일기』, 84쪽. (1911.5.10.); 『국역 백하일기』, 84~85쪽. (1911.5.11.); 『국역 백하일기』, 101쪽. (1911.6.15.)

23) 『국역 백하일기』, 84쪽. (1911.5.10.)

신흥강습소가 개교하였고, 김대락은 학교에 다녀온 소회를 드러냈다.

〈芻街歸路〉	추가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聞說開新學	듣자하니 새 학교가 열린다 하여
將孫午到芻	손자와 오후에 추가가에 이르렀네
歌因荊漸筑	노래는 형가와 고점리의 축소리요
人盡魯齊儒	사람들은 모두 魯·齊의 선비라네
黑宰悲衣制	검게 물들인 의복 제도 슬퍼도
丹心兩國憂	단심으로 나라의 우환을 밝히리
誰爲爲此態	누구를 위하여 이런 모습 되었는고
年老恨無謀	늙어서도 아무 계교 없음이 한스럽네 ²⁴⁾

김대락은 손자와 함께 추가가에 가서 새로운 학교의 시작을 목도하였다. 학생들이 전국시대의 자객 荊軻와 高漸離처럼 의기가 충만하였으며 노나라와 제나라의 선비같이 훌륭한 덕을 갖추고 있음에 감탄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흰색의 한복이 아닌 검은색의 새로운 복장을 입고 있는 모습에 슬퍼하고 한스러워하면서도, 丹心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이듬해인 1912년, 通化縣 哈泥河에 분교인 신흥중학교 설립이 논의되었다. 이동녕과 李喆榮은 김대락에게 방문하여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고,²⁵⁾ 이후 김대락은 직접 합니하의 학교 터를 찾아갔다.

나는 아침 먹은 뒤에 哈泥河로 가서 金永根 집에서 점심을 먹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학교 터를 영건하였다. 강산이 밝으면서 수려하고, 지세가 평탄하고도

24) 〈芻街歸路〉, 『국역 백하일기』, 85~86쪽. (1911.5.14.)

25) 『국역 백하일기』, 223쪽. (1912.2.19.)

넓어서 정녕 유자 학도들이 들어앉아 수양할 곳으로 합당하다. 이로 하여 마음 속 회포가 상쾌해졌는데 이는 이 경내에 들어와 처음 느끼는 것이다.²⁶⁾

위의 인용문은 1912년 3월 2일의 일기로, 학교의 건립에 참여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김대락은 분교인 신흥중학교가 세워질 터를 둘러본 소회를 전하였다. 강산이 수려하고 지세가 평탄하여 배움의 공간으로 적합하다며 상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신흥중학교는 1912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6월 7일 낙성식을 열었다.

이날은 바로 새 학교 건물이 낙성하는 날이다. 모인 사람이 100여 인이고, 학생으로 졸업하는 사람이 7인이었는데 모두 상품을 받았다. 취지서와 축사를 연설하고 창가하고, 만세를 불렀다. 이는 그 회의 일 중에서 진화한 절차였다. 구경한 청나라 사람이 또한 수십 인이었는데, 모두 부러워하며 탄복하는 기색이 있었다. 저녁이 다 가도록 질탕하게 보내니, 한번 통쾌하게 적적함을 깨뜨린 자리였다.²⁷⁾

김대락은 신흥중학교 낙성식의 절차와 그에 대한 소회를 위와 같이 기록하였다. 100여 명의 사람이 모여 북적이는 가운데, 구경하러 온 청나라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끼며 자부심과 통쾌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즈음 김대락은 합니하로 거처를 옮겼다.²⁸⁾ 그의 집은 “문이 학교 길에 접하여 있어 오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뜬하고 잣음이 같지 않은 데다 어떨 때는

26) 『국역 백하일기』, 227~228쪽. (1912.3.2.): 吾則飯後去哈泥河, 午饒于金永根家, 與諸員等營建校基, 江山明麗, 地勢平衍, 政合儒紳藏修之所, 襟期爽豁, 蓋入此境, 初見也.

27) 『국역 백하일기』, 256쪽. (1912.6.7.): 卽新學校落成也. 會者百餘人, 而學生之卒業者七人. 並受賞品, 衍說趣旨祝辭唱歌, 呼萬歲, 蓋其會事中進化節次也. 清人觀光者, 亦數十人, 而皆有欽歎艷服之意. 竟夕軼蕩快一破寂之資.

28)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경북독립운동사』 4, 2013, 경상북도, 110쪽.

이름과 얼굴이 서로 헛갈려서”²⁹⁾ 힘들 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 김대락은 여러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교육의 터전을 일구어 나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락은 사상의 전환을 겪으며 교육의 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였고, 그것은 만주로 이주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는 만주 한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김대락이 현실을 극복하려 했던 의지와 후속 세대에게 勉學을 권장하고 독려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백하 김대락의 현실 인식과 계몽의식

김대락은 국권을 빼앗긴 현실을 체감하고 만주로의 이주를 단행하였다. 그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광복에 대한 의지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만주에서의 생활상을 『백하일기』에 담아냈다. 『백하일기』는 김대락의 의식과 사상이 집약되어 있으며, 김대락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를 둘러싼 주변 상황 및 당시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김대락은 <補忘錄自序>를 통해 『백하일기』를 작성한 목적을 언급하며, 당대의 곤약과 그에 대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냈다.

<補忘錄自序> 보망록 자서

나는 본래 건망증이 있어 남을 마주 응접할 때 五父가 敵血하던 때처럼 한다는 나무람을 받았다. (...) 한번 서쪽으로 건너온 다음에는 彝倫이 끊기고 骨肉이 흩어졌으며, 먹고사는 일에 눈이 어두워 천지의 자리가 바뀌었다. 黨興가 끊기고 이웃이 달라 해괴하고 놀랍지 않은 것이 없고, 이목이 닿는 것마다 생전

29) 『국역 백하일기』, 291쪽. (1912.10.4.)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만일 소홀하게 여겨 지나쳐 버리고 또 이미 지나간 전철을 밟는다면, 때가 바뀌고 일이 지난 뒤에는 마치 모래바람에 기러기 발자국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지금의 풍조가 어떠한지를 알겠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곤액이 어떠한지를 알겠는가? (...) 이에 출발하던 날부터 날마다 기록하여 크건 작건 빠뜨리지 않고, 이미 잊은 것은 더듬어 의심해 볼 여지를 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발자취를 남겼다. (...) 그렇다면 잊어버리는 데 대비하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잊어버리는 데 대비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아! 슬프다, 훗날 나를 제대로 아는 자는 또한 잊어버리는 것에 대비한 기록 바깥에서 잊어버리는 데 대비한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³⁰⁾

김대락은 <보망록자서>의 서두에서 진나라 대부 五父의 고사를 인용하여 일부러 잊어버린 척한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건망증이 심하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만주로 이주한 이후로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보고 듣는 것이 생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일의 대소사를 기록해 발자취를 남기고자 하였다. 당시의 풍조와 곤란한 처지를 소홀하게 지나쳐 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당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김대락은 만주에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현실을 극복하고 광복을 이루고픈 희망을 『백하일기』에 빼곡히 기록하였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후속 세대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장에서는 『백하일

30) <補忘錄自序>, 『국역 백하일기』, 200~201쪽: 余素有健忘之症, 對人酬接, 被五父(陳大夫名)歎血之譏. (...) 一自西渡之後, 彝倫斃絕, 骨肉分門, 粃糠眯目, 天地易位, 絕黨殊隣, 無非可駭而可愕也. 耳目所接, 無非生面而初遇也. 等閒經過, 又蹈已履之前轍, 則時移事去之後, 如風沙鴻迹, 泯沒而無徵矣. 夫孰知爲今日風潮之何如乎. (...) 迺自發程之日, 逐日課錄, 巨細無遺, 已忘者有稽疑之地, 可忘者有不可忘之蹟. (...) 然則補忘可忘, 而不補忘者, 不可忘也. 於乎唏矣. 後之知我者, 其亦見補忘於補忘之外也哉.

기』에 삽입된 다양한 운문과 산문을 통해 김대락의 현실 인식과 계몽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실 극복 의지와 광복에의 소망

김대락은 만주의 생활에 적응해가며 광복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을 내비쳤다. 1911년 5월 17일 일기에서는 “이곳 사람 중 때때로 祠堂에 오가는 사람들이 더러 나라를 걱정하거나 세상을 개탄하는 뜻을 가진 자들이 있어, 마침내 느낀 바를 절구 한 수로 읊는다.”³¹⁾라며 소회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衡門當野路	사립문이 들길을 마주하고 있으니
殊俗自關情	낯선 풍속에 절로 마음이 쓰이네
臥立皆薪膽	누워서나 서서나 복수를 다짐하며
逢迎盡弟兄	만나는 사람이 모두 형제와 같아
河清如何俟	황하가 맑아지길 기다릴 수 있다면
年老奈難成	나이 들었다고 어찌 이루기 어려우랴
日暮懷鄉國	해 저물 무렵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溪禽但慣聲	물새는 다만 저 익힌 대로 울 뿐 ³²⁾

위의 시에서는 광복에 대한 의지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였다. 집 앞으로 청나라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습이 낯설기는 하지만, 시국에 대해 걱정하고 개탄하며 복수를 꿈꾸는 부분은 마치 형제와 같이 닮았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김대락은 비록 자신이 고령이라 하더라도 황하가 맑아지는 태평한 때, 조국의 광복을 기다릴 수 있다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력한 염원을 드러내었고, 더불어 鄉愁를 표출하였다. 김대락의 조국 광복에 대한 의식은 국치기념일에 기록한 일기와 한시에 더 극적으로

31) 『국역 백하일기』, 86~87쪽. (1911.5.17.)

32) 『국역 백하일기』, 87쪽. (1911.5.17.)

표현되어 있다.

國恥記念日이기에 아들과 손자가 모두 학교에 갔다. 저녁에 아이들 편에 듣자 하니, 평안도 정주에 사는 金俊植의 부인 朴氏가 사변 뒤에 그 세 아들을 거느리고 그의 조카 金昌懋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어 입학시키고 자력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그 남편은 고향에 남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학교에서의 모임에 홀로 연단에 서서 말하기를, “비분하고 통한한 뜻은 여러 선생들께서 이미 연설하셨으니, 인방에 있어 寡聞한 사람이 다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곳에 모이신 여러 선생들께서는 각자 힘을 다하여 앞으로 다가올 세월에는 오늘 같은 날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질없는 말만 일삼는다면 이 어찌 회중 여러분들이 信憑하시겠습니까?”라 하고는, 가슴에서 작은 칼을 꺼내어 그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끊는데, 한 번 찌고 두 번 찌고, 세 번 네 번에 이르러서야 뼈마디가 비로소 끊어지니 두 조각 손가락이 연단 아래서 튀었다. 선혈이 낭자하게 저고리 치마를 다 적셔서 자리를 메운 사람들이 실색하고 두려워하여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신색을 태연히 하고 말투를 세차게 하여 조용히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이 제 뜻이니, 여러 선생들께서는 각자 죽을힘을 내어 다시 우리 4천리 제국 땅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 하였다고 한다.³³⁾

위의 인용문은 1913년 7월 28일 일기의 전문이다. 7월 28일은 1910년 경술국치로부터 3년이 되는 국치기념일이었고, 추가가의 신흥강습소에서 모임이 있었다. 김대락은 학교의 모임에 참석한 아들과 손자로부터 평안도

33) 『국역 백하일기』, 449~450쪽. (1913.7.28.): 以國恥記念日, 兒與孫皆去校堂. 夕因兒輩, 聞平安道定州居金俊植夫人朴氏, 自事變之後, 率其三子, 來寓於其姪金昌懋家, 送子入校, 自力挨過, 而其所天, 留故地不來云耳. 是日參入校會, 獨立演壇曰, 悲憤痛恨之意, 諸先生業已演說矣. 閨裏寡聞者, 不必架床, 而第念會中諸先生, 各自效力, 俾無來歲之今日, 可也. 徒事徒言, 是豈會員中可驗之迹乎. 因出懷中小刀, 斷其右手食指, 一斫二斫, 至于三四斫, 而骨節始斷, 分爲二片, 躍于演壇之下, 生血淋漓, 汚衾衣裳, 滿座失色惶悚, 不可言, 而夫人神色自若, 辭氣激烈, 從容笑說曰, 此其志也. 願諸先生各出死力, 復見我四千里帝國地方云云.

정주 출신 김준식의 부인 박씨의 언행에 대해 들은 바를 기록하였다. 박부인은 남편은 홀로 고향에 남겨 두고 세 아들과 이주한 인물로, 연단에 올라 연설하며 斷指를 감행하였다. 김대락은 전해 들은 바이지만 직접 그 광경을 본 것처럼 상세하게 묘사하여 박부인의 행위와 의기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는 광복에 대한 염원과 독립을 위한 노력에는 남녀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고, 박부인의 장엄한 의기를 본받아 한마음으로 조국을 되찾아야 한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대락은 박부인의 헌신에 감동하고 다음과 같은 시도 남겼다.

<寄呈朴夫人血指演壇帷幃之下>

박부인의 단지의 피 젖은 연단 휘장 아래 바치다

鐵石其心玉爾人	철석같은 그 마음에 옥같은 사람이여
三韓風雨一夫人	삼한의 풍우를 헤치는 한 분 부인이네
聊知滴滴刀頭血	이제야 알겠네 칼끝에 방울진 피는
添作新潮噴百人	새 바람 일으켜 모두에게 뿜은 것임을

取義成仁卽此心	의로움으로 인을 이루는 게 내 마음인데
無於當死小伸心	죽음을 앞두고도 그 뜻 펼 수 없었네
可憐閨裏先天月	가련하여라 규방 속 지난날 달이
孤照壇前季女心	연단 앞 젊은 여인의 마음을 외로이 비추네 ³⁴⁾

(孤城後日爭鋒處 快副盟壇袒受心

외로운 성에서 훗날 칼날을 겨룰 때, 盟壇에서 신명을 바쳤던 그 마음에 쾌히 부응하리라)

위의 시는 1913년 8월 3일 일기 하단에 기록되어 있다. 김대락은 박부인

34) <寄呈朴夫人血指演壇帷幃之下>, 『국역 백하일기』, 451쪽. (1913.8.3.)

을 철석같이 굳은 의기로 풍우를 헤쳐나가는 인물로 묘사하며, 斷指로써 모든 사람을 일깨우고 있음에 감탄하였다. 박부인의 행동을 ‘義’로써 ‘仁’을 이룬 것으로 보고, 정작 자신은 그렇지 못했음을 반성하였다. 박부인의 의기로운 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훗날 꽤히 부응할 일이 있을 것이라 부기하면서 광복에 대한 소망을 표출하였다.

김대락의 이러한 현실 인식과 극복의 의지는 <憤痛歌>에도 잘 드러난다. 1912년 9월 27일 일기에, “國文으로 <분통가> 한 편을 지어, 그것으로 비통한 심사를 풀고, 부녀자들에게도 내가 전후로 겪은 곤란을 알도록 하였다. 대략 역사가의 필법을 본떴는데, 이 또한 나의 本領에 드는 것이다. 뒤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³⁵⁾ 라고 기록하여 <분통가>를 창작한 취지를 밝혔다. <분통가>는 시국에 대한 정황과 자신이 만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200행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가사이다.

김대락은 <분통가>의 도입부에서 “우습고도 분통하다 無國之民 되단말가/ 우습고도 憤痛하다 離親去國 扃단말가”³⁶⁾라며 망국유민의 비탄한 심정을 노래하였다.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만주로 이주하여 지내게 된 상황을 나열한 후 역사 속 위인들을 거론하였다. 그러면서 적을 섬멸해보겠다는 의지와 광복 이후의 세상까지 상상해보며 비장한 심정을 드러내었다.

㉠ <憤痛歌> 분통가

嘗膽으로 軍糧하고 臥薪자리 들어누어
一死報國 扃자홀제 老少之別 이슬손가

35) 『국역 백하일기』, 287쪽. (1912.9.27.)

36) <憤痛歌>, 『국역 백하일기』, 402쪽. (1912.9.27.)

達八十에 呂太公은 創業周室 巍巍하고
極壯其猷 元老方叔 出將入相 거룩하고

夔鑠斯翁 廉將軍은 上馬示其 可用이라
七十奇計 范亞父난 楚伯王의 骨鯁일네

圖上方略 金城질에 趙充國도 老將이오
勿謂儒臣 鬢髮蒼은 復讐志願 陳同甫라

智將福將 다모도여 唾手하고 扼腕하되
靑年子弟 압셔우고 復讐旗를 넘피들고

關雲將의 偃月刀와 趙子龍의 八支槍에
陸軍大將 水軍大將 左右로 衝突하니

靑天이 썩노난듯 白地가 슬는닷기
魁首잡아 獻馘하고 都統잡아 數罪한이³⁷⁾

위의 인용문 ㉠은 <분통가> 155행부터 166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臥薪嘗膽의 심정으로 一死報國하려는 데에는 노소의 구별이 없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김대락은 자신이 노령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강렬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呂太公, 方叔, 廉頗, 范增, 趙充國 등 노의 장을 과시했던 중국 인물들의 업적을 예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老將軍들과 관운장, 조자룡 같은 청년자제가 함께 한다면 적을 잡아 섬멸하고 죄를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이라 강렬한 어조로 노래하였다. 김대락은 노장군에 빗대어 국권 회복을 위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청년자제와 동조하여 노소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김대락의 의지와 소

37) <憤痛歌>, 『국역 백하일기』, 410~411쪽. (1912.9.27.)

망은 광복 이후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 廓清區宇 하은후에 自由鍾을 울니치며
오던길로 도라셔서 凱歌하며 춤을추니

二千萬人 歡迎소리 地中人도 起舞한듯
宇宙에 빛치나고 日月이 開朗한듯

英美法德 上等國에 上賓으로 울니안자
六大洲와 五大洋에 號令하고 吞壓하니³⁸⁾

위의 인용문 ㉠은 <분통가> 177행부터 182행 부분이다. 일제를 물리친 후 자유종을 울리며 개선가를 부르며, 2천만 동포는 물론 땅속의 사람도 일어나서 춤을 추고 온 우주가 환하게 밝아질 것이라 상상하였다. 나아가 영국·미국·프랑스·독일과 같은 상등국의 반열에서 오대양 육대주를 호령하고 제압할 것임을 꿈꾸었다. 김대락은 이러한 상상을 통하여 광복을 이루고 서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당찬 포부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렇듯 김대락은 광복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드러내며 현실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후속 세대에 대해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학문에 정진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다음의 절에서는 면학을 독려한 양상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후속 세대에 대한 면학 독려

주지하다시피 김대락은 사상의 전환을 경험한 뒤 신학문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그는 국내에 있을 당시 신학문 교육기관으로 세워진 경북 안동의 협동학교를 지원하였고, 뒤이어 만주에서도 신홍

38) <憤痛歌>, 『국역 백하일기』, 411~412쪽. (1912.9.27.)

강습소, 신흥중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에 전폭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후속 세대의 면학을 강조하였다. 초창기에 설립된 신흥강습소에는 김대락을 비롯한 이상룡, 이회영 등 일가의 자제들이나 앞서 이주해왔던 청년들이 주로 수학하였다.³⁹⁾ 김대락은 이들이 학문에 정진하여 독립운동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였다.

<與萬初拈韻>

만초와 더불어 시를 짓다

吾輩緣何柳縣城
 佇看河水待時清
 擡頭盡是衣冠士
 開口無非劔筑聲
 勝地元從危處在
 奇花猶自舊根生
 薙頭易服還開事
 爲指青年互說明

우리가 무슨 까닭에 유하현에 와서
 우두커니 강물 보며 맑아질 때 기다리나
 고개 드니 모두가 범절 따르는 선비요
 입을 여니 강개한 탄식 아님이 없네
 경치 좋은 곳은 원래 위대한 데 있으며
 기이한 꽃은 오히려 오랜 뿌리에서 나온다네
 머리 깎고 복색을 바꿈은 도리어 한만한 일
 젊은이를 가리켜 서로 설명해야 하겠네⁴⁰⁾

위의 시는 1911년 6월 29일 이상룡[萬初]에게 쓴 시이다. 김대락과 이상룡이 함께 만주로 건너와 살면서 언제일지 모를 광복을 고대하는 소회를 표현하고 있다. 1911년 5월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에 신흥강습소가 개교하였다. ‘범절 따르는 선비’는 그 학생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근심과 탄식이 이어지는 시국에서의 비분강개한 모습을 전국시대 자객 荊軻와 高漸離의 고사에 비유하였다. 아름다운 경치와 기이한 꽃 같은 광복을 위해서는 위태롭고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머리 깎고 호복을 입는 고통은 도리어 한가한 일로 치부하고, 청년들의 학업을 권장하고 독

39) 이계형(2022), 앞의 논문, 69쪽.

40) <與萬初拈韻>, 『국역 백하일기』, 106쪽. (1911.6.29.)

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김대락은 젊은이들에게 두발과 복식을 바꾸는 형식적인 측면에 얽매이지 말고, 꾸준히 학문에 정진하여 내실을 다질 것을 주문하는 계몽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신학문 교육에 대한 강조는 <권유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대락은 1911년 윤6월 12일 학생들을 독려하기 위해 <권유문>을 작성하였다.

㉔ <勸諭文> 권유문

쇠와 돌은 쉽게 부술 수 있지만 자유에 대한 더운 마음은 갈아 낼 수가 없고, 鼎鑊이 앞에 있다 해도 進步하는 단체는 막을 수 없다. (...) 내 말이 미덥지 않다고 한다면 서구의 역사서를 보라. 哥倫布(콜럼버스)는 가난뱅이였으나 아메리카를 얻어 새로운 세계를 열었고, 克林威(크롬웰)는 목동이었으나 북해의 문명을 열었으며, 華盛頓(워싱턴)은 농부였으나 지구의 주인이 되었다. (...) 이들의 행적은 세 번이나 반복하여 읊조리며 감탄하여도 짜늘하게 식은 재 속에서 큰 마음을 일으키게 하노니, 어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팔을 걷어부치고 일어나 흥기할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천하의 대세는 서양이 으뜸이다. 서양이 천하에 으뜸이 된 까닭은 세상에서 어려워하는 바를 실천하여 앞 시대 사람이 밝히지 못한 것을 확충하였기 때문이다. (...) 온 세상이 어리숙할 때 서양에서는 먼저 깨었고, 온 세상이 昏夢할 때 서양은 開明하였다. (...) 만약 능히 서구가 행한 바를 행하고 서구가 배운 바를 배워서 사람마다 개명하고 집집마다 발달한다면, 어찌 그들만 못하며 무엇을 못하겠는가?⁴¹⁾

41) <勸諭文>, 『국역 백하일기』, 125~126쪽. (1911.7.4.): 金石易泐, 而自由之熱心, 不可磨也. 鼎鑊在前, 而進步之團體, 不可防也. (...) 謂余不信, 請觀歐西之史乘, 哥倫布, 婁人也, 而得亞美爲新世界, 克林威, 牧夫也, 而開北海之文明, 華盛頓, 編農也, 而爲地球之主人. (...) 三復詠歎, 可使起雄心於死灰之中矣. 豈非東半島之所當扼腕而興起者乎. 今天下大勢, 泰西爲最, 而泰西之所以最於天下者, 以其行天下之所難, 擴前人之未發. (...) 天下質質, 而泰西先覺, 天下夢夢 而泰西文明. (...) 苟能行歐西之所行, 學歐西之所學, 而人人開明, 家家發達, 何渠不若, 何事不做.

<권유문>의 전반부에는 서양의 문명을 예로 들며 학생들에게 학문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용문 ㉔에서는 콜럼버스나 크롬웰, 워싱턴의 영웅적인 행적을 언급하며 그들의 교훈을 본받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의지를 갖고 국권 회복에 주력하지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어서 천하의 대세를 서양으로 꼽으며, 서양의 開明함을 강조하면서 사회진화론적인 차원에서 서양의 우월함을 인정하였다. 김대락은 서양에 대한 패배의식보다는 ‘開明’에 착안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그 이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배우고 깨우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㉔ 덕을 기르고 신체를 기르고 지혜를 기르는 일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며 專制와 共和, 立憲 제도 또한 모두 강론할 것이다. (...) 한 숨만 붙어 있어도 이 굳은 의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만백성의 원성 소리가 가득 하니 이 원수를 갚지 않을 수가 없음을 누워서나 일어서서나 잊지 말아야 한다. (...) 오늘의 이 어려움이 훗날 우리가 성공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지 어찌 알겠는가? 어렵고 두렵다[難畏]는 글자는 拿與訥(나폴레옹과 루이14세)이 쓰지 않은 것이며, 하지 못한다[不能]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버린 단어이다. 이런 자세로 해나간다면 천하에 어찌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마음을 잡아간다면 천하에 어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⁴²⁾

이어서 인용문 ㉕에서는 지덕체의 함양은 물론 전제·공화·입헌의 정치 제도까지 폭넓게 강론할 것을 주문하였다. 동시에 국권을 회복해야 할 현 상황을 기억하고, 한순간이라도 학업에 나태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어렵다, 두렵다,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

42) <勸諭文>, 『국역 백하일기』, 129쪽. (1911.7.4.): 德育體育智育之并不可緩, 專制共和立憲之, 亦可以講. (...) 一息尙存, 此志不容少懈. 萬姓咸怨, 此讐不可不復, 臥起不忘. (...) 今日困衡, 安知非後日庸王之基礎乎. 難字畏字, 拿與訥之不用也. 不能二字, 佛蘭西之所棄也. 以此做將, 天下豈有難與畏之事乎. 以此爲心, 天下豈有不能爲之事乎.

다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용기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문에 임해줄기를 요청하고 있다.

㉑ 그렇지만 일을 처리하고 계책을 내는 것은 책을 보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옛일을 거울삼아 뒷날의 경계로 삼는 것도 책을 보지 않으면 쉽게 미혹된다. 부지런하고 굳세게 주어진 의식을 정신으로 불러들이고 한 字, 한 句를 철저히 공부하여 책상 앞으로 나라의 혼을 불러들인다면, 이 한 보잘것없는 학교에서도 서양의 將相이 나오고 한 조각 동쪽 반도에서도 歐美의 전체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우리도 서양이 갔던 길을 걸어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원수의 나라를 제압하여 우리 조상의 뒤를 이음에 욕됨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 하늘과 땅이 다시 열리는 運會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세월은 물이 흐르는 것 같다. 책을 펴는 한순간도 아껴야 한다. 만일 한 가지 일이라도 소홀하면 주린 호랑이에게 내 몸을 던져주는 꼴이 될 것이며, 한 생각이라도 후 태만히 하면 독을 마시고 오래 살기를 비는 격이 될 것이다. 아아, 그대들이여,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43)

인용문 ㉑은 <권유문>의 후반부이다. 한 글자와 한 구절이라도 철저히 깨 과고드는 독서를 강조하며 계속해서 학업에 열중해줄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양의 영웅과 같은 학생들이 배출되어 원수를 갚고 국권을 회복하기를 희망하였다. 춘음을 아끼고 운회의 시기를 붙잡아 끈기 있게 학문에 정진할 것을 권유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분통가>의 말미에서 “憤痛코도 快活하다 靑年學徒 드러보소/ 靑春이 더이없고 白髮이 於焉이라/ 日征月邁 時習하야 人一能之 已百之라/ 아무려도 雪恥하야 大韓帝國

43) <勸諭文>, 『국역 백하일기』, 132쪽. (1911.7.4.): 雖然, 做事發謀, 非書不能, 監前戒後, 非書易惑, 萼萼乞乞, 喚主翁於靈臺, 字字句句, 招國魂於刀頭, 則一局殘校, 生歐美之將相, 一片東島, 見歐美之全局, 平步歐美, 救生靈於塗炭, 挺制讐邦, 纘厥祖而無忝. (... 乾坤再闢, 運會之時機難失, 歲月如流, 書鋪之寸陰可惜. 苟一事之或疏, 見餒虎而投肉也. 苟一念之或怠, 若飲鴆而祈壽也. 於乎, 諸子可不勉哉.

보고디고”⁴⁴⁾라고 한 것과도 상통한다. 그는 학생들이 시간을 아껴 학문에 일취월장하여 광복을 이루어내기를 염원하였다.

요컨대 김대락은 <권유문>에서 서양 문명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우리도 개명한다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으며, 그렇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학업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대락이 국권의 회복을 꿈꾸며 후속 세대에게 끊임없이 학문을 권유하는 부분은 다음 시에서도 나타난다.

<白下僑居吟>	백하에 타관살이하며 읊다
我本箕鮮族	나는 본래 기자의 조선족이라
邦俗況尙白	나라 풍속도 흰색을 숭상하네
寄語青年子	청년들에게 말하노니
犁然俟而白	검게 물들이려 하면 바로 희게 회복하기를
氣勇侔韓白	용맹한 기운으로 힘써 대한을 밝혀
伯業鄙小白	패업을 이루어 소백을 능가토록 하라
願爾勤且學	바라노니 너희들은 근면하고 또 배워
寧死服清白	죽을지언정 청백하여야 한다 ⁴⁵⁾

위의 시는 1912년 11월 20일에 기록한 <白下僑居吟>의 일부이다. 총 90행으로 구성된 긴 분량의 시로, ‘白’이라는 시어를 거의 대부분의 구절에 삽입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위의 인용 부분에서 김대락은 우리가 흰색을 숭상하는 백의민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언급하면서, 청년들에게 항상 흰색의 본질을 유지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용맹한 기운을 떨쳐 小白을 능가하는 위업을 이룩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소백은 齊桓

44) <憤痛歌>, 『국역 백하일기』, 412쪽. (1912.9.27.)

45) <白下僑居吟>, 『국역 백하일기』, 308쪽. (1912.11.20.)

공을 가리킨다. 제환공은 춘추시대를 처음으로 제패한 위대한 업적을 지닌 인물이다. 김대락은 제환공을 능가하는 패업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학문에 힘쓰기를 주문하며, 더불어 清白의 자세를 잃지 않을 것도 요청하였다.

김대락은 비단 남성이나 학생들에게만 한정하여 학문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여성, 특히 손녀에 대해서 교육을 시도했던 부분도 『백하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식들이 眞書를 배우지 않은 것은 오로지 才難 때문이니,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다는 속습 때문에 그리된 것이다. 비록 남녀가 유별하다지만 어찌 두 가지에 모두 능한지, 그리고 문자를 어느지로 분별하겠는가? 조선의 풍속은 더욱 심하여 끝내 조상의 이름자도 알지 못하게 된 것을 나는 속으로 개탄하였다. 이에 작은 종이에 먼저 긴요한 글자 천 자를 써서 손녀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제법 재주가 있었다. 비록 문장 이해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아주 딱 막힌 지경은 되지 않으리니, 이 또한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순서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⁴⁶⁾

위의 인용문은 1912년 11월 10일 일기의 전문이다. 김대락은 문자를 읽과 모름으로 남녀를 분별할 수 없으며, 여성들이 眞書를 배우지 않는 조선의 풍속 때문에 끝내 조상의 이름자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개탄하였다. 그리하여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千字를 써서 손녀에게 알려주니 제법 깨우침이 있었다. 이후 김대락은 손녀에게 다산 정약용의 글을 가르쳤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다음의 한시에 드러나 있다.

自我開基是太初	나부터 기초를 여니 이것이 태초인데
居何如也意何如	살이는 어떠하며 뜻은 어떠해야 하는가

46) 『국역 백하일기』, 304쪽. (1912.11.10.): 女子之不學眞書, 亶由於才難, 而不能兼治之俗弊所使也. 雖男女有別, 而焉能並與文字而別之乎. 東俗尤甚, 終不識父祖諱啣. 余竊慨然, 茲以片楮先書緊要字一千, 課授女孫, 頗由才苗. 雖未嘗期擬文章, 而不歸於全然茅塞, 則此亦不啻爲發蒙之一階級也.

天連白嶽東南路	하늘에 이어진 백두산 동남쪽 길
心在靑巖父子廬	마음은 청암부자의 집에 가 있다네
樽裏香醪來上箬	독 안의 향기로운 술은 상약촌에서 왔고
刀前荒秃老中書	책상 앞의 모지랑 붓 늙은이의 글씨라네
孫娘恨唱思鄉曲	손녀는 한스럽게 고향노래 부르는데
歸夢常尋鏡浦瀾	고향 꿈엔 언제나 경포대 물가 찾는다네

(頷聯用靑岩居士甄濟事 上箬村名 有好酒 余不解飲酒 而適因苦渴 送女孫得酒於主姪家 又書二千字 爲女孫教學之意 故三聯并及之

함련은 청암거사甄濟의 고사를 썼다. 上箬은 촌락의 이름이며 좋은 술이 있다. 나는 술을 마실 줄 모르지만 마침 괴로운 갈증 때문에 손녀를 조카 규식의 집에 보내어 술을 얻어왔다. 또한 二千字(다산 정약용의 이천자문)를 써서 손녀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뜻을 붙인지라, 이 때문에 3연에서 아울러 언급하였다⁴⁷⁾

위의 시는 1913년 1월 15일에 지은 시로, 일가를 만주로 이끌고 와 정착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시 하단의 부기를 살펴보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손녀를 조카의 집에 보내 술을 얻어오게 된 사정을 전하면서, 손녀에게 다산 정약용의 이천자문을 써서 가르쳤다는 점을 기록하였다. 이천자문은 정약용이 초학인 아동의 교육용으로 지은 『兒學編』을 가리킨다. 이처럼 김대락은 손녀에게 『아학편』을 가르치면서, <書丁茶山二千字後>라는 글을 지어 힘써 연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書丁茶山二千字後> 정다산의 2천자 책 뒤에 쓴다

글이란 말을 적은 것이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바꾸어서 글로 적으니, 易의 文言과 시의 言志와 노래의 永言과 역사의 立言이 다 이것이다. 이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 애초 남녀를 구별

47) 『국역 백하일기』, 340~341쪽. (1913.1.15.)

하지 않았으니, 『烈女傳』과 『內則』은 모두 백세를 일깨우고 나태한 부녀자들을 흥기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규방에서 취하여 법도로 삼는 것을 어찌 글을 버리고 다른 데서 구할 수 있겠는가.

(…) 한 번 책을 열면 천하 경륜의 핵심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하물며 이것이 초학자의 지침이 되며 진취의 단계가 되는 데 있어서야 어떠하겠는가? 선현의 후학에 대한 인도가 이와 같이 각근하셨는데도 책을 묶어놓고 보지 않는다니야, 그것이 애석할 따름이다.

이에 내가 손녀에게 써주어 날마다 일과를 정해 시험하고, 옛 병폐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도모케 한다. 아름다운 글귀를 찾아 세밀히 분석하고 은하수를 짜서 치마를 짓는다면, 바둑을 아는 아내와 심법을 논하는 딸이 다시 우리 가문 안에 있어, 옷감을 재던 자[尺]를 바꾸어 평등을 헤아리는 저울을 만들고, 늘어뜨린 귀고리를 풀어 자유의 종을 주조하게 되리라. 남부끄럽고 귀찮은 고질을 타파하고 끈고 깨끗한 절조에 힘쓰게 하여, 혹 세상이 뒤집혀 혼란한 시절을 만나더라도 지아비는 창을 매고 아내도 대오로 단결한다면 夫人城(晉나라 朱序母의 故事)도 가능하며 娘子軍(唐나라 柴紹의 故事)도 가능할 것이니, 누군들 그렇지 못하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단정하고 의젓하며 유순하고 아름다운 婦德에 있어서는, 법도를 훼손하거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공경 근신하여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所命에 있어서는, 허리에 수건을 채워주고 문밖에서 배웅하시던 마음을 감히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로써 글을 지어 변명이나 꾸미는 자료로 삼으면서 현실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 어찌 늙은 할아버지가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겠는가? 오직 너희 손녀들은 공경하며 힘쓸지어다.⁴⁸⁾

48) <書丁茶山二千字後>, 『국역 백하일기』, 348~351쪽. (1913.2.3.): 文者文其言也. 人不可以無言, 故譯其言而爲之文, 易之文言, 詩之言志, 歌之永言, 史之立言, 皆是也. 是以古者教人, 初無男女之別, 而列女內則, 皆可以風百世, 而起懶婦也. 閨壺之取, 以爲法者, 豈可舍書而他求哉. (….) 一開卷而天下之大綱畢具, 矧初學之指南也, 進步之階級也. 前人之誘示來學, 若是其勤, 而束書不觀, 吁其可惜也已. 茲余書授女孫, 逐日課試, 革舊瘼而新是圖, 尋章句而析絲, 織雲漢而爲裳, 解圍之嫂, 論心之女, 復在於吾家門中之內, 而移衣尺而造平等之權, 解垂璫而鑄自由之鍾, 破羞澀之膠瘤, 勵貞介之操節, 其或遭遇板蕩, 士荷戈而妻編伍則夫人城

김대락은 <書丁茶山二千字後>의 서두에서 예전에는 가르침에 있어서 애초에 남녀의 구별이 없었음을 언급하며, 정약용의 『아학편』이 초학자의 지침을 기록한 것이라 반드시 봐야 할 책으로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써서 가르치며 손녀가 깨달음을 얻어 자유와 평등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쑤나라 朱序의 어머니가 부인들을 모아 秦나라의 침범에 방비하고, 당나라의 평양공주가 남편 柴紹와 장안에 체포되었을 때 시소를 탈출시키고 자신은 낭자군을 조직했던 고사를 인용하며 여성도 충분히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낼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러면서도 학문의 정진과 더불어 단정하고 유순한 婦德도 잘 지켜야 한다는 할아버지로서의 소망도 밝혔다.

김대락은 학문의 정진을 강조하는 한편, 바르지 못한 학습 태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兒曹有躡取燥進意 故詩以警之> 아이들이 학업의 순서를 건너뛰어 조금하게 나아가려는 뜻을 가지는지라 시를 지어 경계한다.

天時人事直如掇	천시와 인사는 비빈 듯 엉겨 있으니
一理生生積漸推	한 이치에서 생겨나 점점 쌓이는 것이라
若使朝華當夕墜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떨어지듯 한다면
不如黃果待秋開	황과가 가을 기다려 열리는 것만 못하리
聊知壯蹟身先瘁	장한 업적 이루려면 몸이 먼저 수고해야지
未見胡休手攫來	호휴를 손으로 붙잡는 이 못 보았다네
會有潮平風順日	조류가 고르고 바람이 순한 날 만나면
自然船如水同回	자연히 배처럼 물과 함께 돌아가리라 ⁴⁹⁾

(晉朱序母事), 可也. 娘子軍(唐柴紹事), 可也. 誰之不若, 何憚不爲. 雖然, 端莊柔婉之德, 不可以毀矩踰闕, 敬戒無違之命, 不敢忘結輓臨門, 若以是而爲摛文騁辯之資, 而無其實而副之, 則豈老祖期擬之心乎. 惟爾諸娘, 敬之哉, 勉之哉.

위의 시는 1913년 12월 7일 일기에 수록된 것이다. 시의 제목에 보이듯, 학생들이 순서를 건너뛰며 조급하게 공부하려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김대락은 순서와 순리대로 학습하여 이치를 쌓아나가야 하는데,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떨어지고 황과를 가을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처럼 성급한 자세로 학문에 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수고스럽더라도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공부해나간다면 광복의 날이 가까워지고 순풍을 만난 배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바르고 제대로 학습하는 태도를 지니기를 요구하였다.

이처럼 김대락은 남녀를 불문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면학을 독려하였다. 서양의 문명의 우월성을 인정하며 그들의 개명함을 본받기를 주장하면서도, 전통적인 도덕을 함양하여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도 함께 강조하였다.

4. 결언

본 논문에서는 『백하일기』를 통하여 백하 김대락의 현실 인식과 의식 세계를 조명해 보았다. 김대락은 20세기를 전후해 격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사상의 전환을 경험한 혁신유림이다. 위정척사의 사상이 짙은 보수유림이었으나 매부인 이상룡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상룡은 서양의 서적을 탐독하고 세계정세에 대한 안목이 생기면서 신학문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인물이다. 이상룡이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하고 계몽운동을 주도하자 안동의 유림 사회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사상의 전환을 겪는 유림이 등장했는데 김대락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김대락의 사상적 전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설립에 극력 반대하였던 신학문 교육기관인 협동학교에 자신의 50칸의 가옥을 교사로 제공한

49) <兒曹有躡取燥進意 故詩以警之>, 『국역 백하일기』, 482~483쪽. (1913.12.7.)

것이다. 이는 ‘교남교육계의 신적치’라 평가받은 바 있다. 이후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자 1911년 1월, 김대락은 67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일가를 이끌고 만주로 이주하였다. 만주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후원은 이어졌다. 1911년 5월 유하현 추가가의 신흥강습소, 1912년 6월 통화현 합니하의 신흥중학교라는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김대락은 『백하일기』를 통하여 현실 인식과 계몽의식을 드러냈다. 가사 <분통가>를 비롯한 한시와 일기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와 광복을 이루려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국치기념일의 모임에서 斷指를 감행했던 박부인의 비장한 의기를 소개한 것이나, <분통가>에서 일제를 물리치고 광복을 이루어 당당히 서양의 반열에 오르기를 꿈꾸는 부분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김대락은 후속 세대의 면학을 강조하였다. <권유문>이나 한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착실하게 학문에 정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남성에 한정하지 않고 손녀에게 『아학편』을 가르쳤으며 <書丁茶山二千字後>라는 글을 지어 학문에 힘써 연마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처럼 김대락은 남녀를 불문하고 후속 세대에 대한 면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김대락의 『백하일기』는 그의 사상과 의식은 물론 당대 만주의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백하일기』를 통하여 김대락이 영위했던 만주에서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이를 위해 후속 세대의 면학을 끊임없이 요청했던 계몽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1~492쪽.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1~761쪽.
-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경북독립운동사』 4, 2013, 경상북도, 1~556쪽.
- 『황성신문』, 1909년 5월 8일자.
- 강윤정,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한국학논총』 49,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8, 321~352쪽.
- 고순희, 「일제 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담당층 혁신유립을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27,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37~68쪽.
- _____, 「만주 독립운동가 김대락의 <분통가>」, 『오늘의 가사문학』 13, 고요아침, 2017, 62~70쪽.
- 김명균, 「백하 시 연구」, 『경북인의 만주지역 항일 투쟁사 연구』, 경북유림 만주망명 100주년 및 개관 4주년 기념 학술회의,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11, 111~141쪽.
- 김순석, 「김대락의 현실인식과 대응」, 『태동고전연구』 41,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8, 37~65쪽.
- 김용직, 「<분통가>의 의미와 의식」, 『한국학보』 5-2, 일지사, 1979, 2213~2225쪽.
- 김윤규, 「20세기 초 만주 망명 지식인 한시의 문학적 성격-『백하일기』 소재 시의 경우」, 『국어교육연구』 50, 국어교육학회, 2012, 429~458쪽.
- 박원재, 「석주 이상룡의 현실인식과 유교적 실천론-정재학파의 유교교육론」, 『오늘의 동양사상』 11,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4, 381~403쪽.
- 서동일, 「유림의 만주 이주와 신흥무관학교 설립」, 『숭실사학』 45, 숭실사학회, 2020, 153~178쪽.
- 손대현, 「<분통가>에 나타난 백하 김대락의 삶과 미완의 꿈」, 『안동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33~52쪽.
- _____, 「<분통가>에 나타난 역대 인물 서술의 양상과 그 의미-<역대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55, 한국시가학회, 2022, 153~181쪽.
- 이계형, 「1910년대 전반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안동 혁신유림의 역할」, 『만주연구』 33, 만주학회, 2022, 47~87쪽.
- 장세운, 「1910년대 남만주 독립군 기지 건설과 신흥무관학교-안동유림의 남만주

- 이주와 이상룡·김동삼의 활동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24, 만주학회, 2017, 89~131쪽.
- 전설련, 『『백하일기』의 서술방식과 그 문학적 성격』,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6, 1~72쪽.
- _____, 『백하 김대락의 한시에 구현된 가족애와 그 의미』, 『가족과 커뮤니티』 2,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2020, 45~68쪽.
- _____, 『근대전환기 만주망명작가들의 현실인식과 문학적 대응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2022, 1~224쪽.
- 정병석, 『일제강점기 경북 유림의 만주 망명일기에 보이는 현실인식과 대응 - 『백하일기』와 『서사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4, 87~115쪽.
- 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1911~1913)』, 『안동사학』 5, 안동사학회, 2000, 143~227쪽.
- 한경희, 『백하 김대락의 일상기록 『백하일기』 고찰』, 『한국지역문학연구』 3, 한국지역문학학회, 2013, 163~187쪽.
- 한시준, 『신홍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5~31쪽.

ABSTRACT

A Study on Baekha Kim Dae-rak's World of Consciousness
Revealed in *Baekhailgi*

Song, Ji-hye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Baekha Kim Dae-rak's reality perceptions of and world of consciousness through "Baekhailgi(白下日記)". He was an Innovation Yurim(革新儒林) from Andong, Gyeongbuk who lived through the turbulent times around the 20th century and experienced a change in ideology. The fact that Kim Dae-rak gave his house to the Hyeopdong School(協東學校) building, which he had vehemently opposed, is an example that clearly shows his ideological change.

After Japan took away Korea's sovereignty, in January 1911, at the age of 67, Kim Dae-rak immigrated to Manchuria with his family. He also continue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Manchuria. In May 1911, Shinheung School opened, and in June 1912, Shinheung Middle School opened. These were important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later became the predecessors of the Shinheung Military Academy(新興武官學校) and became stronghol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early days of immigration. Kim Dae-rak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wo schools and contributed greatly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education.

Kim Dae-rak expressed his will to overcome reality and his hope to achieve liberation through his "Baekhailgi".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and achieve liberation, he constantly emphasized the study of the next generation. He urged the students to diligently study and become leading figures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He also mentioned the issue of women's education and urged his granddaughter to focus on her studies. In this way, he expressed the need for learning for the next generation, regardless of gender.

Kim Dae-rak's "Baekhailgi" is a valuable resource that allows us to comprehensively examine his thoughts and consciousness as well as the lifestyle of Manchuria at the time. As we examine his life in Manchuria through the "Baekhailgi", we can feel his earnest desire for liberation and confirm his awareness of enlightenment that constantly requested future generations to study it.

Key Words Baekha, Kim Dae-rak, *Baekhailgi*, reality perceptions, enlightenment consciousness

논문투고일: 2024.10.22.

심사완료일: 2024.11.06.

게재확정일: 2024.11.17.